호남지방 전통주택에서의 규모와 평면형식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마을을 중심으로 —

金聖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李素燕
(연세대학교 석사 삼우설계근무)

1. 서론

지금까지의 전통주택의 연구에는 몇가지 습관적인 방법상의 경향이 있는 반면 그러한 경향이 만들었던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그 하나는 주택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 파악 이전에 반가(班家) 민가(民家)라는 이분법적 구별을 먼저 선행시키고난 후에 그 구별아래서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반가 민가의 구별이 모호한 중간계층이 없는 것도 아니며 반가 민가가 완전히 다른 구성형식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결과적으로는 연구의 편향성을 초래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

두번째는 주택이 지어지는 재료와 구법에 대한 연계의 문제이다. 우리의 주택이 목재로 지어지는 관계로 재료의 성질상 일정한 주간거리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평면이 구성되면 이것이 칸(間)이라는 모듈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칸수의 증감이 평면형식의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평면형식이 철저하게 칸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비하면 재료와 구법에 대한 고려가 약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세번째의 경향과 한계는 주택의 평면을 특정지역에 국한시킨 연구보다는 전국적인 또는 광역적인 보편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의 시대에도 지역간의 특수성이 뿌리깊게 남아있는데 하물며 전통사회에서의 주택이 지역적 자기성을 초월하는 일반적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가정이 그렇게 설득력있기는 어렵다. 주택은 그 지역의 산물이고 지역적 특수성이 범지역적 일반성 이전에 추구되어야 하는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의 경향이 만드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관산읍(寬山邑) 방촌리(傍村里)의 계춘동(桂春洞)과 내동(內洞)의 주택중에서 전통적인 형식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31호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3차례의 답사[1]를 통하여 주택의 평면을 채취하고,

1) 1차 1992년 10월 2-4일
2차 1993년 1월 24-25일
3차 1993년 4월 24-25일

주민들과의 면담으로 집의 사용방식과 개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능한한 원형을 추적하였다.

지금까지의 주택연구가 호남지방보다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호남지방에서 대상지역을 찾았다. 동시에 서민계층에서부터 상류주택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있다는 점도 방촌마을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 이유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입장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상의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수집된 평면을 상류주택과 서민주택의 구분없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계급적 측면에서 반가 : 민가라고 하는 이분법적 틀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생활수준과 환경에 따른 규모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관찰함으로서 반가 · 민가의 구별이전에 찾아지는 공통적 원리가 있는 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지역의 주택들이 대부분 1900년대 이후에 지어졌고, 반가 · 민가의 구별없이 모두 일자형 평면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가능케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반가 · 민가의 구별을 분석의 틀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칸의 수를 분석의 기본적인 틀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것은 칸의 수가 평면유형을 다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칸 수의 증감관계가 평면변화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 변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칸의 수가 같다는 것은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수가 원칙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통적인 구성원칙을 추출하기에 편리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상의 전제 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① 칸수에 따른 규모별로 공간의 배치와 공간사이의 인접관계를 분석하여 구성원칙과 기본유형을 찾아내고, 또 칸수의 증감에 따른 평면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여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② 일부 큰 규모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랑채가 없으며, 또 안채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석의 주대상은 안채가 된다. 그러나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는 안채의 공간구성원칙과의 비교를 위하여 사랑채의 공간분석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켰다.

2. 연구대상지역의 현황

2-1. 장흥군 방촌마을의 인문환경[2)]

장흥은 전라남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보성군(寶城郡), 강진군(康津郡)에 인접하여 있으며 남부는 다도해로 완도군(莞島郡)과 접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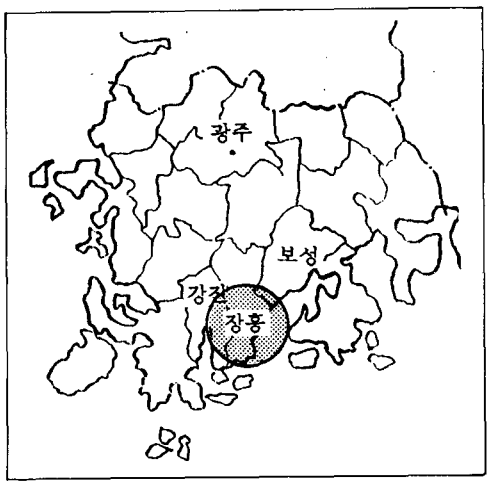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역의 위치

장흥은 모두 10개의 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방촌이 속한 관산읍은 장흥군의 중남부에 위치하여 남해안과 접해있다. 방촌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중앙과는 지정학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하나였으며, 산지가 많고 험하여 83년말 도로포장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광주에서 차량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교통의 오지였다. 육로는 비록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졌으나 바다와 접해 있어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로를 이용해서 도서지방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3)]

2) 장흥군에서 펴낸 장흥군지에서 참조.
長興郡誌編纂委員會, 「長興郡誌」, 長興郡, 1990.

3) 長興郡誌編纂委員會, 앞의책, 540쪽.

방촌리는 서쪽의 천관산(天冠山)을 배경으로 하여 동쪽의 상잠산(觴岑山), 남쪽과 북쪽의 크고 작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사방 4km에 걸친 분지형의 지형이다.

방촌의 진산인 천관산은 예로부터 신산(神山)이라 일컬어지는 산으로 이 자리에 마을이 입지하게 되는 주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천관산이 수려장엄하여 진산으로서 상징성을 갖기는 하지만 암반이 많이 드러난 석산(石山)이어서 방촌에서 비교적 오래된 마을은 안산인 상잠산을 등지고 앉아 있다. 천관산 줄기에서 뻗어나온 산자락은 상잠산까지 이어져 산자락이 마치 마을을 끌어안듯이 감싸도록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점은 풍수적 사고의 발현으로 보인다.〔그림 2〕

연구대상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내동과 계춘동도 상잠산을 등지고 앉아 구릉을 따라 선형을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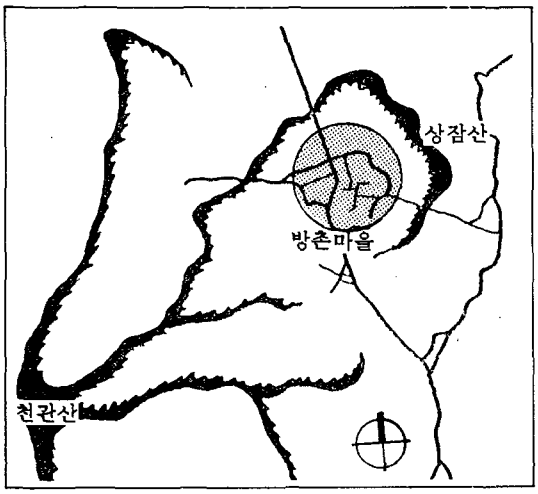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지역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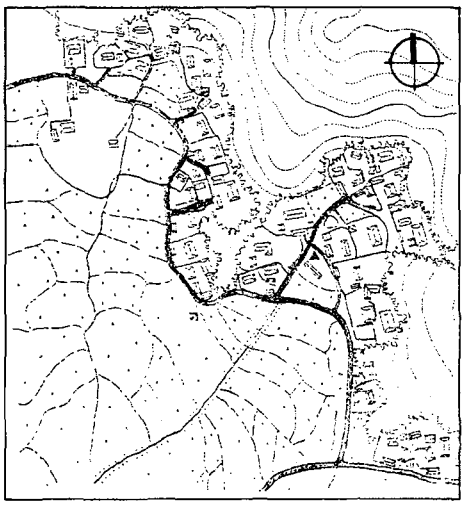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대상마을의 배치

방촌마을은 6개동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의 90%이상이 장흥 위씨(長興 魏氏)로 구성되어 있는 동족마을이다. 횡적으로 보이는 마을의 배치에 있어서 풍수적으로 좋은 입지에 지어진 집은 예로 부터 좋은 가문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족의 위계가 마을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2-2. 연구대상가옥의 현황〔표 1〕

31호의 조사대상 주택은 안채의 규모를 기준으로 3칸에서 6칸까지로 나뉘어진다. 3칸집이 6호, 4칸집이 10호, 5칸집이 10호, 6칸집이 5호가 조사되었다. 3, 6칸집에 비해 4, 5칸 집의 수가 많은 것은 4, 5칸이 3, 6칸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칸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볼때 정상분포의 경향을 나타낸다. 6칸집을 일반적으로 양반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 4, 5칸의 경우가 많다는 것은 반가 민가의 구별을 어렵게하는 중간계층의 주택이 실제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 점도 반가 민가 구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가지 근거가 된다.

조사대상주택의 건립연대는 1916년에서 1960년 사이로 대부분 일제시기에 조영되었으며, 근대도시주택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택들간의 건립연대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로서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주택이 일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분류에 따른다면 '남부형'민가에 속하며[4], 부엌과 작은방은 대부분 겹집화되어 전후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엌이 분화된 주택은 모두 16호로 4칸집과 6칸집은 대부분 분화되어 있고,

4)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 4」,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1, 180쪽.

〈표 1〉 연구대상가옥의 현황

		3칸집	4칸집	5칸집	6칸집
호 수		8	10	10	5
실의분화		5	9	9	5
	큰 방	0/5	0/9	0/9	2/5
	작은방	5/5	8/9	9/9	5/5
	부 엌	2/5	7/9		4/5
	마 루	0	0/9	0/9	2/5
부엌위치	좌	2/6	5/10	1/10	2/5
	우	3/6	5/10	9/10	3/5
퇴의구성	전	5/6	9/10	10/10	5/5
	후	0/6	0/10	2/10	0/5
	좌 우	0/6	1/10	1/10	2/5

간사이		8자	9자	8자	9자	8자	9자	8자	9자
	큰 방	4	2	2	8	2	7		4
	작은방	3	3	6	4	6	4	2	3
	부 엌	2	4		8	2	6		5
	마 루			6	3	6	3	5	
		9	9	14	23	16	20	7	12

건립연대		
	-1920	3호
	1920-1945	7호
	1946-	10호
	미 확 인	11호

3칸집은 2호, 5칸집은 분화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작은방 부분은 28호가 복렬화되어 대부분의 집이 분화되어 있다.

대청 혹은 마루는 모두 폐쇄되어 마루방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판장문을 설치하고 있다. 마루가 폐쇄되는 경우에 흔히 그렇듯 툇마루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큰방과 마루부분의 전면에는 모두 툇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사랑채는 모두 5호가 조사되었는데 4칸집이 3호 5칸집이 2호이다. 사랑채가 부속되어 있는 집의 안채규모를 살펴보면 6칸집이 4호, 5칸집이 1호로 살림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 속한다.

3. 평면유형의 분석

3-1. 평면구성요소 및 구성방식

1) 3칸집

3칸집의 기본적인 공간구성 요소는 큰방, 작은방, 부엌이다. 일반적인 실의 배치는 큰방이 중심에 위치하고 큰방의 좌우에 부엌과 작은방이 붙는다. 이러한 구성을 가진 집은 6호중 5호이며 이때 부엌이 오른쪽에 오는 경우가 2호, 왼쪽에 오는 경우가 3호이다. 그림 4에서 3-1호(3칸집의 변화) 위방환씨댁이 이러한 평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1호는 부엌이 중앙에 위치하여 큰방과 작은방이 좌우에 배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5. 3-6호 주택〕 따라서 실구성의 기본원칙은 부엌-큰방-작은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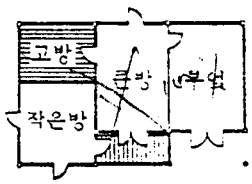

그림 4. 3-1호 위방환씨댁

이러한 공간의 구성 안에서 기본공간구성 요소 중 분화되어 다른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분화되는 공간은 부엌과 작은방으로 큰방은 항상 통칸으로 구성된다. 작은방은 부엌-큰방-작은방의 기본원칙을 가진 주택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화되어 고방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고방은 작은방에 부속되는 수장공간은 아니다. 고방은 사용은 큰방에서 사용하도록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다.

부엌의 분화는 5호중 2호만이 보여 작은방과 같이 항상 나타나는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규모의 집들과 연계하여 보면 보다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엌의 분화로 생성된 부엌방은 생활공간으로서의 규모가 되지는 않는다. 사용형태로 볼때 부엌에 부속되는 수장공간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엌과 큰방과의 중간동선 역할을 하고 있다.

퇴칸은 전면에 형성된다. 큰방의 전면에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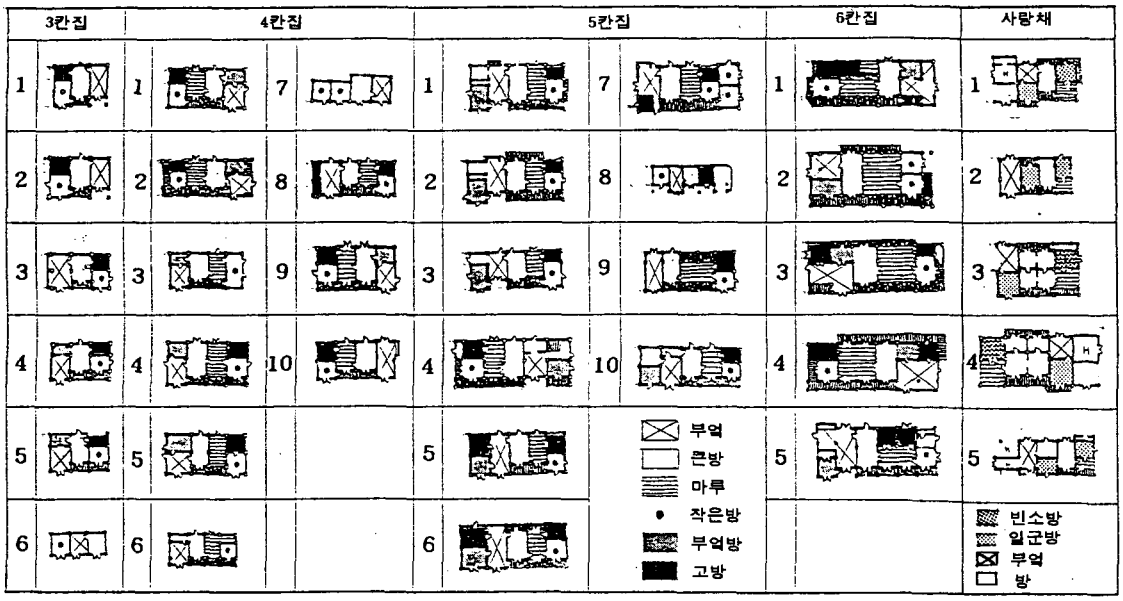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대상가옥의 평면

3-1 위방환 3-2 위규량 3-3 위점수 3-4 김안님 3-5 위춘함 3-6 / 4-1 위방량 4-2 위주환 4-3 허봉출 4-4 위계홈 4-5 위성현 4-6 위성빈 4-7 위종량 4-8 위준량 4-9 4-10 위정환 / 5-1 위성찬 5-2 위옥현 5-3 임차선 5-4 위철환 5-5 위욱량 5-6 위국량 5-7 위성오 5-8 위금환 5-9 위성환 5-10 위기량 / 6-1 위 성 6-2 위계환 6-3 위성룡 6-4 위방환 6-5 위성렬 // 사랑채 1. 위성렬 2. 위욱량 3. 위성룡 4. 위 성 5. 위봉환

두 툇마루가 만들어져 출입하며 작은방의 전면에 툇마루가 있는 집은 2호였고, 툇마루가 없는 경우에는 큰방 전면의 툇마루에서 작은방의 측면으로 출입하고 있다.

2) 4칸집

공간구성요소는 3칸집의 큰방-작은방-부엌에 마루가 첨가되어 4칸을 만든다. 일반적인 실의 배치는 3칸집의 구성에서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마루가 삽입되어 만들어진다. 즉,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 10호중 9호의 분포를 보인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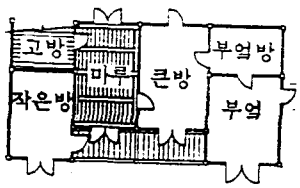

그림 6. 4-1호 위방량씨댁

하나의 예외는 기본적인 3칸집의 구성에서 마루가 없이 작은방이 두개 연속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그림 4. 4-7호 위종량씨댁〕

실의 분화는 작은방과 부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작은방의 분화는 9호중 8호에서 나타나서 일반적인 원칙임을 알 수 있으며, 작은 방에서 사용되지 않고 인접한 마루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부엌의 분화는 3칸집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구성을 보이는 9호중에서 7호의 집에서 부엌의 분화로 부엌방을 형성한다. 그런데 그 기능은 3칸집의 경우와 비교할 때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3칸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엌방이 거주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큰방과는 분리되고 큰방과 부엌은 직접 연결된다.

마루는 4칸집의 규모가 되어야 나타나는 공간요소로서 큰방과 작은방사이에 위치하며, 모두

외부에 폐쇄되어 판장문으로 출입한다. 내부에서는 큰방으로의 출입이 가능한 반면 작은방과는 이어지지 않는다. 개방형의 마루와 비교하여 볼 때 생활의 기능보다는 수장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장만을 전담하는 공간은 아니며 제례가 행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식사 등의 행위도 이루어지는 중간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나타난다.[5]

마루가 폐쇄되므로 각 공간으로의 출입은 모두 툇마루에서 이루어지게된다. 마루와 큰방의 전면에는 툇마루가 반드시 설치되며 작은방의 출입은 3칸집과 같다.

3) 5칸집

5칸집의 구성요소는 4칸집과 같다. 다만 구성방식을 달리 하여 집의 전면에 부엌방-부엌-큰방-마루-작은방으로 4칸집의 구성에서 부엌의 단부로 부엌방이 진출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 10호중 7호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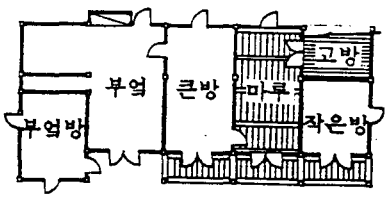

그림 7. 5-1호 위성찬씨댁

부엌과 부엌방만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의 모서리에 부엌방이 자리하여 부엌이 ㄱ자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4호〔그림 8-a〕, ㄱ자부분에서 부엌방 뒷부분이 부엌과 구획되어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3호이다.〔그림 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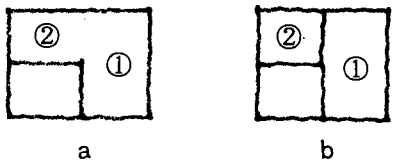

그림 8. 5칸집의 부엌구성

이때 부엌공간의 용도를 살펴보면 취사는 주로 ① 부분에서 행해지고 ② 부분은 수장이나 작업을 위한 부속공간으로 이용되어 ①과 ② 부분이 구획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의 공간사용은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칸집의 부엌쓰임과 비교하면 부엌방이 거실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수장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부엌은 전라남도 남서해안의 도서지방 완도, 진도, 신안등지에서 일반적인 형식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해로상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교류가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6] 다른 공간의 구성은 4칸집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의 구성에서 작은방 단부에 방으로 된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그림 5. 5-7호 위성오씨댁〕, 마루없이 작은방-부엌-큰방-고방-헛간으로 구성된 경우〔그림5. 5-8 위금환씨댁〕와 부엌-큰방-2칸대청-작은방으로 된 경우〔그림5. 5-9 위성환씨댁〕가 각각 1호 있었다.

4) 6칸집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4칸집의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의 구성에서 부엌과 마루공간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5호중 4호가 따르고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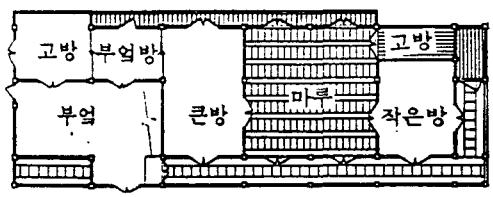

그림 9. 6-3호 위성룡씨댁

5) 일반적으로 남동해안지역의 민가에서 안청은 수장공간으로서 구성되는데,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수장공간과 생활공간의 기능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동쪽으로 갈수록 제청이나 생활공간으로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4, 71쪽.

6) 천득염. 주남철, 「전남지방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612, 51쪽.

1호는 5칸집의 구성에서 마루가 2칸이 되어 6칸을 형성한다.〔그림5. 6-5호 위성렬씨댁〕

실의 분화는 3, 4, 5칸집과 마찬가지로 작은방에서 나타나고 형식도 같다. 부엌도 분화되어 부엌방을 만드는데 2칸부엌인 경우 고방과 부엌방이 각각 한칸씩 만들어져 거주의 기능과 수장의 기능이 분리되어 형성된다. 4, 5칸집과는 달리 6칸집에서는 마루가 분화되는 경우도 보인다. 마루가 분화되는 경우에도 수장공간을 형성한다.

마루는 기본적으로 전면 2칸의 공간을 확보한다. 4, 5칸집과는 달리 작은방에도 마루로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마루의 수장적 기능은 더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툇마루는 부엌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에 설치되며, 측면에도 툇마루를 설치하는 예가 많아진다.

이상에서 기술된 규모별 평면의 형식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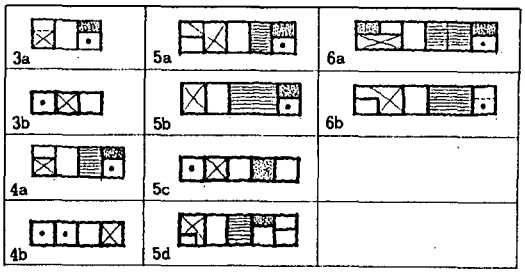

그림 10. 평면의 형식

3-2. 칸수의 증감에 따른 평면구성의 변화

각 규모별로 평면의 일반적인 유형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큰방-작은방으로 구성된 3칸집을 기본형으로 한다. 기본형에서 작은방과 큰방사이에 마루가 한칸 첨가되면 4칸집을 형성하고, 5칸집은 부엌공간이 확장되어 이루어진다. 6칸집은 4칸집의 구성에서 마루와 부엌이 확장되어 만들어진다.

3칸집에서 6칸집을 통틀어 실이 배치되는 방식의 한가지 원칙은 공간과 공간사이의 인접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엌과 큰방이 인접하고 큰방과 마루, 마루와 작은방, 작은방과 고방이 항상 서로 인접하게 위치하여 형성된다.〔그림 11-a〕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의 흐름안에서 출현회수는 적지만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5칸집에서 2칸마루를 갖는 5-9호와 6칸집에서 5칸집과 같은 형태의 부엌을 구성하는 6-5호이다. 5-9호와 6-5호는 중상류층의 주거로 조사되고 있는데 중상류층의 주거가 2칸마루를 기본으로 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 또 한가지는 서민층의 주거와 중상류층의 주거가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서로를 모방하였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b〕

이러한 구성안에서 칸수와는 무관하게 지켜지는 구성원칙이 있다. 조사 대상주택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실의 분화가 발생하여 겹집화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분화되는 공간과 분화되지 않는 공간을 구분해 보면, 주로 분화가 되는 공간은 양끝의 두 공간, 즉 부엌과 작은방으로서 부엌은 부엌방을 만들고 작은방은 고방을 형성한다. 반면에 큰방과 마루는 대부분 통칸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화되어 만들어진 공간들의 용도는 부속적인 성격이 강하여 주로 수장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부엌의 분화로 만들어진 부엌방은 부엌살림을 위한 부속공간이거나 부엌의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의 거처로 이용된다. 작은방의 분화로 만들어지는 고방은 안방에 부속되는 수장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겹집화 경향은 후기로 오면서 전통주거의 구조적 한계안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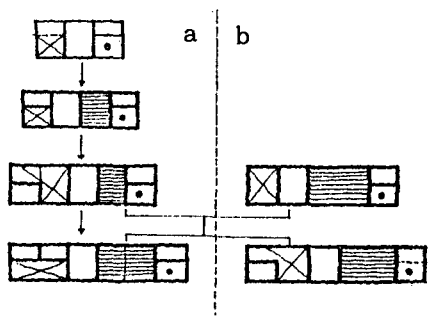

그림 11. 칸수에 따른 평면구성의 변화

3-3. 변화의 방식

규모별의 구성원칙을 비교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면의 칸수가 증가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하는 방식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공간이 추가된다.

둘째, 기존 공간이 확장된다.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는 형식이 먼저 취해지고 다음에 기존공간의 확장이 일어난다. 즉, 3칸에서 4칸의 규모가 될 때 마루라는 공간이 추가된다. 4칸에서 5칸이 될 때 부엌이 먼저 확장되고, 5칸에서 6칸이 될 때 마루의 확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양상으로 보아서 공간간의 중요도를 추정할 수 있다.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엌, 방, 마루로 볼때 부엌과 방은 마루에 비해 더 원천적인 삶의 필수적인 공간요소임을 알 수 있다. 마루라는 공간요소가 4칸집의 규모가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3칸집을 최소한의 주거로 보고 일단 3칸이 확보된 후에는 부엌과 방중에서 부엌이 우선된다. 이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방이라는 공간은 침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고 집안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많은 부분이 부엌에서 이루어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엌과 마루사이에서도 부엌이 먼저 확대됨은 부엌이 마루보다 그 기능상의 비중이 큰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마루의 확장은 상류주거와 서민주거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진다. 2칸 마루는 6칸집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조사결과 6칸집은 마을에서 위계가 높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한 상류층으로 나타나서 의례공간을 중요시하는 생활방식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간의 사용면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마루는 규모가 큰집으로 갈수록 수장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생활기능, 의례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의 변화를 보인다. 즉 마루와 공간간의 관계를 보면 4,5칸집에서는 큰방으로만 통하여 있고 작은방과는 폐쇄되어 있었으나 마루가 2칸의 규모를 가지게 되는 6칸집에서는 작은방에서도 마루로 직접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6칸집은 상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도의 위계를 가진집으로 의례생활이 이루어지는 마루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엌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기능간의 분화가 있게 된다. 규모가 확장되면 부엌방의 거주기능이 강화되고 분리된다. 즉 부엌의 부속공간으로서 작업과 수장의 기능을 하던 것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부엌방이 부엌의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의 거주공간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의 분석을 정리해 보면 규모의 증가에 따른 공간단위의 증감의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부엌, 큰방, 작은방의 기본 3칸집에서 4칸으로의 확장은 마루라는 새로운 공간의 추가로 이루어진다. 4칸에서 5,6칸으로는 공간의 추가없이 기존단위가 증가되는데 5칸집에서 먼저 부엌이 확대되고 6칸집에서 마루가 확대되는 형식이 취해진다.

3-4. 사랑채의 평면구성

위와 같은 안채의 평면구성원칙이 사랑채와는 어떤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지역에서 사랑채는 4칸집이 3호, 5칸집이 2호 모두 5호가 조사되었다. 사랑채를 가지는 주택의 안채 규모는 6칸집이 4호, 5칸집이 1호로 살림의 규모가 비교적 큰 집에서 사랑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6칸집의 안채가 2칸의 마루를 구성함을 상류주택의 가시적 표현으로 간주하였던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는 분석대상가옥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면구성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요소를 추출해보면 사랑채는 사랑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되고 이 요소들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부엌과 마루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이를 기본으로 4칸집은 사랑방부분이 전면 2칸이 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대상가옥중 사랑방 부분이 1칸인 위성렬댁의 경우를 보면 부엌-사랑방-마루의 3칸에 문간채가 덧붙여져 있다. 문간채를 집의 배치상 구성되는 사랑채의

필수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3칸의 규모를 가지는 사랑채의 일반해(一般解)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엌-사랑방-마루의 기본형에서 4칸집은 방부분이 전면 두칸으로 확대되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5칸집은 4칸집의 일반형에서 부엌단부로 헛간이 덧붙여져 만들어지고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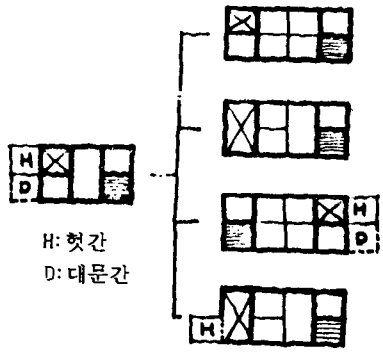

그림 12. 사랑채의 평면계통

5호의 사랑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채와 마찬가지로 겹집화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에서는 모든 공간구성요소가 분화되어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분화되어 나타나는 공간의 용도를 살펴보면 부엌은 일꾼방을 만들고, 마루의 분화는 상을 당했을때 빈소를 차리는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랑방의 경우는 수장공간으로서 사용된다. 마루는 안채의 것과는 달리 개방되어 있으나 큰 기능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되는 방식은 안채의 경우와 비교가 된다.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에서는 방이 확대되고 있어 집의 사용방식이 안채와 다름을 알 수가 있다. 즉,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의 공간인 안채에서 부엌이라는 작업공간이 중요시되고 큰면적이 할애되는데 반해 사랑채에서 부엌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대신 주인남자가 거하는 사랑방이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엌-큰방-마루-작은방의 구성을 가지는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에서는 마루를 중심으로 방이 배치되지 않는다. 사랑마루는 오히려 사랑방과 빈소를 위한 부속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랑방이 두칸으로 될 경우에도 마루를 중심으로 큰사랑의 맞은편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이 모여 田자형의 평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사랑채에서도 겹집화경향이 강한 것으로 겹집화 경향은 방촌마을에서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가 전제했던 두가지 연구의 입장, 즉 반가 민가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칸수를 평면형식결정의 기본적 요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연구결과 충분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의 주택은 반가 민가의 구별없이 규모에 따른 일정한 평면구성의 법칙이 찾아지며 이 법칙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칸수의 증감에 따른 공간의 첨가 및 확장이 규칙적으로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두드러진 평면형식결정의 일반적 원칙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3-6칸 규모의 안채는 3칸집을 원초적 기본형으로 하며, 3칸집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부엌-큰방-작은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주택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마루라고하는 공간이 3칸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더우기 방촌이 남쪽끝에 해당하는 지역이면서도 남방계 건축의 특성인 마루공간은 큰방, 작은방, 부엌보다는 순위상 다음 단계의 공간적 우선 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2. 3칸 기본형에서 4칸집은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마루가 첨가되어 구성된다. 마루는 1칸의 좁고 긴 형식이며 대청마루와 같은 영남지방 반가의 기능과 형식과는 다소 다르며 수장공간의 기능이 강하다. 동시에 의례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남아있다. 4칸집이 됨으로서 주택구성에 필요한 공간요소는 다 생긴셈이며 4칸 이상으로의 확장은 같은 공

간이 확대됨으로해서 생긴다.

3. 5칸집은 4칸집에서 부엌이 확대된다. 부엌이 먼저 확대된다는 사실은 3칸에서 4칸이 되었을때는 마루가 생겨야했지만 4칸에서 5칸이 되었을때는 무엇보다 부엌의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대됨으로해서 3칸의 세 요소 중에서도 기능상 공간이 더 필요했고 중요한 곳이 부엌이라는 점이 입증된다.
4. 6칸집은 부엌이 확대된 5칸집에서 마루가 확장되어 6칸집을 형성한다. 이 사실은 5칸집에서 부엌 다음으로 확대의 필요가 생긴 것이 마루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루의 확장은 일반적인 상류주택의 예와 의례공간의 기능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의 규모가 커질때 변화는 1) 새로운 공간의 첨가 2) 기존 공간의 확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새로운 공간이 첨가되고 다음에 기존의 공간이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 마을에서 조사된 주택중에 몇채의 예외를 빼고는 모두에서 확인된다. 주의할 점은 3칸에서 6칸까지의 칸의 증가가 이루어질때 이와같은 공간의 첨가와 확대가 단계적으로 원칙과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공간이 확대되면 확대되기전에 비해 공간의 기능도 다소 변하는 것도 확인된다. 공간의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로서는 부엌과 방이 무엇보다 기본적이되 방은 2개로부터 출발되고 부엌은 5칸에서부터 확장되는 방식으로 수요가 충족된다. 마루는 부엌과 방보다는 다음 순위이지만 6칸에서는 마루가 확장되는 것 역시 마루의 기능이 생활속에서 비중을 더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채는 안채에 비하여 숫자도 작고 6칸집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원리적용의 측면에서 같이 분석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채와의 비교의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사랑채 역시 3칸이 기본이 되는데 3칸의 요소가 안채와 달리 부엌-방-마루라는 점이다. 마루가 처음부터 포함되며 방의 갯수가 그 대신 1개인 점이 다르다. 그리고 4칸으로 확대될때 방이 먼저 확대된다는 점은 주의할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안채에서는 양끝에 있는 작은방과 부엌이 겹집화되는데 비하여 사랑채에서는 그 가운데 부분을 포함하여 다양한 겹집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안채와 비교되는 사실 중의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겹집화 경향이 강하다. 안채의 겹집화는 집의 양끝에 있는 공간인 부엌과 작은방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부엌이 분화하여 부엌방을, 작은방이 분화하여 고방을 형성한다. 사랑채는 마루가 분화하여 빈소를 차리는 공간을 만들고 부엌이 분화하여 일군방을 만들며 사랑방이 분화되어 수장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이 마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연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에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최소한 호남지방의 주택에서라도 본 연구와 같은 공통성은 확인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반가 민가의 구별이전에 확인되는 평면구성의 공통적 원칙은 반가 민가를 모두 포함시켜서 찾아져야할 것이며 평면형식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칸수의 증감변화에 따른 공간의 첨가 확장의 공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Plan and Scale in the Traditional Houses of Honam Province

— Based on the Case of Bangchon Village in Janghung County —

Kim, Sung Woo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So Ye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la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are devided by the span-units which is the automatic result of the timber constru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ays plan type change when the number of span changes. One village named Bangchon in Honam Province was selected where we investigated more than 30 houses ranging from 3 span to 6 span.

It is identified that there were certain rules which govern the plan change when number of span change. When one span is added onto 3 span houses, wooden floor of one span is added in between the two ondol-rooms. When one span is added onto 4 span houses, kitchen is enlarged. When one span is added onto 5 span houses, wooden floor is enlarged into 2 span.

Also the plan of Man's quarter(Sarang-chae)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Lady's quarter.

The research proves that such rules of plan change need to be considered as a basic standard of analysis when traditional houses are to be studied.